

枕山 李洙仁의 삶과 시세계에 대하여*

김 승 룡**

- I. 침산을 마주한 변명, 그리고 簡譜
- II. 시세계의 몇 가지 국면들
 - 1. 독서를 통한 識者로서의 자질 추구
 - 2. 枕山(산을 베다)과 의지적 공간의 확보
 - 3. 立心과 制行, 학문적 지향과 실천
- III. 결론을 대신하여: 근현대 지식인과 漢學

국문초록

이 논문은 침산 이수인의 학문과 사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스케치를 목적으로 한다. 『枕山隨錄』은 필사본 자료로 남아 있다. 모두 8권으로, 그 안에 詩는 302수, 挽詩 200수, 書 56편, 序 16편, 記 15편, 跋文 7편, 說 6편, 論 6편, 通文 5편, 箴 2편, 銘 9편, 贊 6편, 上樑文 5편, 行狀 5편, 傳 3편, 墓碣銘 8편, 祭文 46편, 告由文 13편, 雜著 8편 등을 수렴해놓았고, 부록으로 枕山에 대한 輓詞, 祭文, 行狀, 墓銘, 訃告錄 등을 수록해놓았다.

침산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의 학문적 논의와 역사의식, 독립운동의 사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laohu99@pusan.ac.kr

적을 먼저 고찰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침산의 정감세계에 주목하여 다루고자 한다. 가능한 한 침산의 행적과 연계된 시를 중심으로 다루어서, 시를 통해 그의 정감이 구체성을 띠도록 하고자 하였다. 침산의 삶을 온전하게 복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텍스트가 보여주는 궤적을 쫓아가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의 연보를 간략하게 제시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그의 시세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의 시는 독서와 산과 詠物을 주요한 키워드로 창작되었다. 이를 통해 침산의 시세계는 독서를 통하여 지식인으로서의 자질을 추구하였고, 산을 통해 공간을 의지화하였으며, 마음을 세우고 행실을 제어하며 학문적 실천을 도모했다고 파악하였다. 끝으로 침산이 근현대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시를 통하여 차근차근하게 추구해나갔다고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차후 침산의 학문적 지향과 실천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침산, 이수인, 의지적 공간, 입심(立心), 제행(制行), 지식인, 한주(寒洲) 학파

I. 침산을 마주한 변명, 그리고 簡譜

이 글은 枕山 李洙仁의 학문과 사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스케치를 목적으로 한다. 침산을 하나의 小考로 살펴본다는 것은 대단히 버거운 일이다. 침산의 행적은 한국근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데다 寒洲學脈(특히 大溪 李承熙의 제자)의 한 맥락을 꿰고 있기에 그 학문과 사상의 특징을 규명하기에도 쉽지 않다. 연구자가 영남유학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학맥의 근원적 요체를 장악하고 있어야 그 학적 성취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와 시문을 주고받거나 편지를 주고받았던 인물들, 그가 죽었을 때 만사를 헌정했던 분들이 방대하여 그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필자는 그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거대한 산을 마주한 느낌을 가졌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枕山隨錄』에 수록된 내용을 一瞥한 뒤에 가진 1차적 拙文임을 이해해주길 바라면서 글을 시작하도록 한다.

『枕山隨錄』은 필사본 자료로 남아 있다. 모두 8권으로, 그 안에 詩 302수, 挽詩 200수, 書 56편, 序 16편, 記 15편, 跋文 7편, 說 6편, 論 6편, 通文 5편, 箴 2편, 銘 9편, 贊 6편, 上樑文 5편, 行狀 5편, 傳 3편, 墓碣銘 8편, 祭文 46편, 告由文 13편, 雜著 8편 등을 수록해놓았고, 부록으로 枕山에 대한 輓詞, 祭文, 行狀, 墓銘, 訃告錄 등을 거두어 두었다.

우리가 침산을 이해하려면 첫째, 학문적 논의들, 주로 경학문답을 통하여 그가 터득한 학문적 맥락을 이해하고, 둘째, 고전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추구하였는지를 살피며, 셋째, 인간적 교류를 통하여 추구한 인간관과 그 실천을 확인하고, 넷째, 시적 정감을 관류하는 意境을 분석해 내야 한다. 이 네 가지는 각각 하나의 소주제이자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 가운데 본고는 詩의 情感을 관류하는 意境의 분석을 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되도록 삶의 행적과 뚜렷하게 연계된 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침산수록』에서 행적과 연동된 시를 추려내었고, 이를 簡譜 안에 제시해 두었다. 시가 갖는 생명력은 공허한 탄사나 관성적 창작보다는 삶의 숨결 속에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

이다.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하여 짧게 일별한 처지이긴 하지만, 그의 시에는 아름다운 인간애와 세상에 대한 따스한 마음이 흐르고 있었다.

주로 시에 卽한 서술방식을 취한 이유는 침산의 삶에 대한 선지식들, 이를테면 한주학맥의 계승자요 독립운동가라는 학문적, 사회적 무게를 벗어나서 ‘인간 침산’을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이 하나의 이유요, 시를 제 1의 텍스트로 하여, 작품 속 포인트를 찾아서 그의 생각과 감정을 읽고 싶었던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이다. 『침산수록』에 보이는 시들은 비교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 편집되어 있어서 어렵פות하나마 다양한 소재를 관류하는 핵심 정감 혹은 창작주제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침산의 삶을 簡譜로 정리하되 시기마다 지어진 작품들을 係年하여 삶과 시가 이어지도록 했다. 덕분에 시세계의 국면들을 논의할 때, 다소 창작배경을 넘어선 지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백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그의 시세계를 크게 독서를 통해 識者로서의 자질을 추구했던 모습, 산을 통해 의지적 공간을 확보하는 태도, 立心과 制行, 학문적 지향과 실천 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그의 시세계가 구현하고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像을 추론하고 침산의 시문 속에 들어있는 情緒的 動脈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논의는 차후 침산의 학문과 사상, 현실 속 실천과 맞세워 논의할 때 더욱 진한 농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침산의 삶을 <枕山李公行狀>(李基元), <枕山李公墓銘>(金槐) 및 시문에 의거하여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簡譜로 정리할 수 있다. 干支를 확인할 수 있는 시문을 係年하였지만 실제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절에서 다룰 내용은 이 간보에 의거하여 진행될 것이다.

- 성은 李氏, 명은 洙仁, 초명은 洙錫, 자는 子裕, 호는 枕山.
- 조부는 基泰, 호는 伊洲. ○선고는 祚鉉, 호는 龍湖. 寒洲의 四丙午生(俛字 郭鍾錫, 膠字 尹胄夏, 紫東 李正模) 가운데 하나. ○선비는 治城宋氏 廷禮의 따님.
- 1880년(고종17, 1세), 5월 11일, 星州郡 大家面 龍興里에서 태어남.
- 1886년(고종23, 7세), 부친 돌아가심.
- 1889년(고종26, 10세), 大溪 李承熙에게 수학함.

- 1893년(고종30, 14세), 과거에 응시하러 서울에 올라감. ○1894년 과거폐지 후 세상에 대한 뜻을 그만두었고, 암흑세상을 만나 우국의 일념으로 살아감.
- 1896년(17세),居昌의 郭鍾錫을 찾아가 사제의 예를 올리고 寒洲學의 요결을 배움. <答宗人舜欽(基憲)○丙申在居昌加祚時>
- 1899년(광무3, 20세), <治亂策序>, <送成覺夫(樂聖)序>, <書鄭公(旼永)壯觀錄海溢篇後>
- 1901년(광무5, 22세), <送張進玉(宅煥)序>, <贈李夢叔(愚正)出世序>, <又贈別序>, <送姜景雲(龍熙)序>, <送李孔登(泰熙)序> ○<上大溪翁>, <答李夢叔(愚正)>, <答姜景雲(龍熙)>, <上大巖孫丈(廷謨)>
- 1902년(광무6, 23세), <與李見可(貞基)>, <上勉窩李丈(德厚)>, <與宋舜佐丈(浚弼)>, <與宋順翼(鴻來)>
- 1905년(광무9, 26세), 용호공이 倭虜를 배척하자는 상소를 올렸다가 체포되어 대구 감옥에 수감됨. 이때 공이 용호공의 행장을 李基元에게 요청했었음.
- 1908년(융희2, 29세), 대계를 좇아 러시아 海參威로 건너감. 이곳에서 머무는 4년간 溥齋 李相高, 毅庵 柳麟錫 등과 중유. ○<答李參贊(相高○在浦鹽移住宋王嶺時)> <答王昌東(本姓啣鄭順萬)>, <答李致三(炳台)>, <上柳菴菴(麟錫)>
- 1945년(30세), <答朴泰庵>, <答王于天(斯嫻)>
- 1903년(24세), <答李君伯(達能)>
- 1910년(순종4, 31세), <所次山宗案序>
- 1914년(35세), 宗中에서 시조의 유허에 제사를 지낼 때 都廳을 맡았음. ○<漢南詩稿序>, <族譜跋>
- 1916년(37세), 대계가 봉천에서 객사함. 부음을 듣고 달려가 治喪함.
- 1919년(40세), 과립평화회의에 보내는 長書에 연명함. ○3.1운동에 참여한 일로 대구 감옥에 6개월간 수감됨. ○망국 후 동경으로 건너가 죽손 慶煥의 광복 도모를 도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귀국함. 이후 경환이 순국한 뒤 세상을 뜻을 두지 않고 杜門한 채 학문에 힘을 기울임. ○<獄中扇銘>
- 1926년(47세), 三五堂을 지어 世譜를 닦음. 有司로 참여.
- 1928년(49세), <戊辰族譜跋>
- 1936년(57세), 3월, <俗離山行錄序>
- 1937년(58세), 상주에서 朴魯燦 소장 책을 보고 <書南直菴履穆三官隨錄後>지음. ○<朴魯燦家藏書冊匣銘>
- 1949년(70세), 『高景錄』 저술
- 1956년(77세), <與李表兄允欽(明源)>, <答卞子由(永轍)>
- 1957년(78세), <答尹振淸(泰龍)>, <答鄭復景(漢圭)>, <答金成伯(斗鍊)>

- 1962년(83세), 1월 10일, 세상을 떠남. 星州 觀峰村 艮坐原에 장사 지냄.
- 1972년, 장자 英植, 침산공의 행장을 李基元에게 요청함.
- 1995년, 建國褒章에 추서됨.

II. 시세계의 몇 가지 국면들

1. 독서를 통한 識者로서의 자질 추구

<鄭復景이 중용을 읽는 것을 보고 쓰다>

惟子讀茲書	오직 자네 이 책을 입을 손
當知道不遠	정녕 도가 멀지 않음을 알아야 하네.
若佩伐柯則	만일 나무하는 법도를 지닌다면
何憂人自遠	사람이 절로 멀을 어이 걱정하리.

침산의 시에는 특이할 정도로 독서와 관련한 흔적이 많이 드러난다. 아마도 젊은 시절 공부할 때의 고민과 삶이 그대로 녹아든 듯하다. 그의 독서는 아주 가깝고 쉬운 곳에 대한 공부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시는 그의 그런 태도를 잘 보여준다. 오언시 20자 안에 보이는 주제는 명징하다. 『중용』 13장에 “道不遠人, 人之爲道而遠人, 不可以爲道.”라고 했다. 주희에 의하면, 도는 率性일 뿐이다. 본디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람과 멀리 있지 않다. 만일 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 卑近한 것은 실행하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高遠한 것만을 추구한다면 이는 도를 행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 실례가 『시경』 빈풍의 <伐柯>편이다. 즉 나무하는 도끼의 자루가 바로 눈앞에 있어, 법도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음을 제시하는 시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법도는 늘 어딘가 고원한 곳에 있다고 여긴다.

『중용』 13장의 서두를 시로 쓴 理語詩로서 시적 비유나 상징은 들어 있지 않아 다소 느슨해 보이지만 내용만큼은 만만치 않다. 침산은 『중용』의 핵심은 ‘道不遠’에 있다고 한다. 이는 침산의 삶 속에서 끝까지 관철

되는 자의식으로 보인다. 사실 그의 시를 통관하면 형이상학적 이론보다는 일상의 관계나 자연, 그리고 윤리 속에서 자신을 가다듬고 있다.

<鄭聖一이 독서하며 기이한 음식 먹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기에 축하 운으로 짓다>

書中固有奇	책 속에 진실로 축하가 있으니
人病不知奇	사람의 병통은 기를 모르는 것이네.
詳味方生奇	자세히 음미해야 바야흐로 기가 생기나니
驟看那得奇	갑자기 보면 어찌 기를 얻으리오.
微處每多奇	은미한 곳에 매양 기가 많고
細精看覓奇	세밀하게 봐야 기를 찾으리라.
期得盡其奇	기약할 손 그 기를 모두 얻어
更無餘蘊奇	더 이상 남은 기가 없고파라.
前頭得一奇	앞에서 기 하나를 얻고
後面更尋奇	뒤에서 다시 기를 찾을지니.
良智日開奇	선한 지혜는 날로 기를 열 것이오
萬書可達奇	만권의 책으로 기에 이를 수 있지.
此奇非別奇	이 기는 별다른 기는 아니요
心理涵生奇	心理를 함양하여 기를 낳은 것.
勿以意生奇	뜻으로 기를 낳지는 말아야
方爲眞箇奇	바야흐로 진짜 기가 되네.
恒從平處奇	항상 평범한 곳에서 기하나니
莫向險中奇	험벽한 곳에서 기하지 말라.
如求別逕奇	다른 길에서 기를 구한다면
便是非佳奇	곧 아름다운 기는 아니리라.

‘奇’를 운자로 지은 20행 장편시이다. 침산의 시 가운데 다소 특이한 시이다. 시체에 의하면 ‘기이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는 벗에게 해주는 권면의 성격을 지니지만 흥미롭게도 앞의 시에서 보였던 ‘道不遠’의 뜻이 반복되고 있다. 시의 16~20구가 그러하다. ‘奇’는 남다른 특이함을 뜻한다. 즉 우리가 갖고 싶거나 추구하는 어떤 것을 뜻한다고 이해된다. 이 시를 찬찬히 읽어보자.

제1구~2구는 책 안에 들어있는 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꼬집

고 있다. ‘人病’이라고 했으니 하나의 병증처럼 사람들에게 들러붙어 있는 습관이자 오류이다.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3~6구가 제시되고 있다. ‘詳味’와 ‘驟看’을 대비하면서, 자세히 음미할 것을 권유한다. ‘味’와 ‘看’의 대비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맛으로 음미하듯이咀嚼해야 한다. 그저 주마간산처럼 스치듯 흘기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滋味の 미학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生奇’라고 했지 ‘見奇’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詳味’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기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미하는 과정에서 기가 생성된다는 점이다.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주동적으로 음미하는 과정이 어우러질 때, 책 속에 들어있던 기가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다. ‘발견’이 아니다. 그러고 보면 책 안에 들어있던 기는奇的 可能태일 뿐이다. 그래서 ‘微處’에서 찾고 ‘細精’하게 살펴야 한다. 그리하여 기를 남김없이 내 것으로 만들라고 권유한다. 흡사 하나의 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 기는 한꺼번에 확보되지 않는다. 9~12구에서 보듯이 ‘前頭’에서 ‘後面’으로, 그리하여 ‘萬書’를 통해 기를 찾아 나가야 한다. ‘日開’라고 했으니, 하루하루 기를 열어 보여야 한다. 책을 읽는 방법은 하루하루 차분하게, 앞에서 뒤로 세밀하게 살펴보고 자세하게 음미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작자는 기의 성격을 재차 구명하고자 한다. 즉 13~16구가 그것이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찾아낸 기는 ‘別奇’가 아니다. 즉 우리와 별도로 떨어져 존재하는, 그런 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心理涵生奇’라고 재차 밝혀놓았다.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 안에 涵養해내며 ‘생성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인은 ‘勿以意生奇’하라고 했다. ‘以意生奇’는 의식(이성)으로 기를 낳는 것으로, 체화하여 ‘심리’ 안에서 함양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난다. 意와 心の 차이를 생각해보라. 심리 속에서 함양된 기를 ‘眞奇’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이후 17구~20구에서 ‘佳奇’는 ‘平處’에서 나오지, ‘險中’에서 구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拙見하기에 이 시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부분이 아닐까 한다. 평이한 곳에서 기를 생성하는 것, 특별한 길, 험한 길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보았던 ‘道不遠’의 반복이다. 사실 ‘奇’자가 갖는 특이함, 별다른, 기특함 등의 의미가 통쾌하게 顛覆되고 있다. 침산의 삶 자체도 특이한 궤적을 추구하진 않았다. 공부하고 그 의미를 좇아 실천했으며, 그것이 이른바 자주적 삶을 살기 위하여 외세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에게 이는 자연스러운 일상사였다.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온 뒤에도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되 특별한 기를 찾지는 않았다. 평이해 보이지만 학문의 끈을 놓지 않고 시종 자신을 지식인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독서 방법,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시는 회작이면서도 회작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히 ‘書中固有奇’를 ‘心理涵生奇’에서 찾아내는 것, 즉 독서와 마음수양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은 이후 다른 시에서 거의 일관되어 나타난다. 이를테면, <한계에서 돌아와 李聲玉 죽인과 같이 읊다>에서도 “讀書先合此心清, 閉戶何妨戶外聲”라고 했다. 즉 책을 읽을 때에는 ‘此心’의澄清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차심’은 그냥 나의 마음, 이곳의 마음 등의 뜻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소위 독서시는 나이가 들어서도 창작된다.

千古相傳學有源
聖賢猶起讀書村
人生大道斯爲脈
物累橫牽盡奪魂

천고에 전하길 학문에 근원이 있나니
성현도 오히려 독서촌에서 일어났지.
인생의 大道는 이것을 맥박으로 삼나니
물욕에 얽매 끌리면 모두 넋을 빼앗기네.

<선대의 문집을 교감할 때에 鄭磊軒(宗鎬), 李一軒, 金直齋(純夫), 朴修觀(景遠) 崔修峰(雲卿)과 같이 모여 읊다>의 일부이다. 이 시는 1950년대 중반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보다 앞서 <남의 요청을 받고 다시 이 대통령 두 번째 피선에 대하여 읊다>라는 시가 있는 바, 이승만은 1952년에 제2대 대통령으로 피선되었으니, 대략 침산의 나이 73세이다. 여하튼 그는 이 시에서도 독서와 관련된 생각을 드러내고 있었다.

선대문집을 교감하면서 거론했으니 당연히 책과 관련된 것이지만, 그

럼에도 2구의 ‘讀書村’이란 구절이 눈에 들어온다. 흔하지 않은 표현이다. ‘村’은 공간만은 아니고 ‘집안’을 염두에 둔 것이다. 종족을 염두에 두면 쉽게 이해될 법도 하다. 학문의 근원이 있다고 전해지지만, 그래도 관건은 바로 ‘독서’의 유무에 있었다. 책을 읽는 마을에서 성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침산은 독서를 통하여 식자로서의 자의식을 평생에 걸쳐서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런 태도는 실제 산하를 찾고 時物을 吟詠하는 가운데에서도 의미 있는 작품을 생산해낸다. 그가 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살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枕山(산을 베다)과 의지적 공간의 확보

<산에 올라 경치를 즐기다>

斜陽牧馬坐山臺

物物春光滿目來

逐物題詩還喪志

莫如含趣但徘徊

석양 아래 말을 치다 산언덕에 앉으니

물물마다 봄빛으로, 눈 가득 다가오네.

사물을 좇아 시를 지으면 또 뜻을 잃나니

차라리 흥취 머금고 그저 배회하리라.

이 시는 사실 주희의 ‘玩物喪志’에 대한 경계를 염두에 두고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희는 呂東萊와 같이 武夷山에 들어가 사물을 보고 시를 지으려다가 혹여 자신의 뜻을 잃을까 염려했었다. 제3구의 ‘逐物題詩還喪志’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작자가 취한 전략은 ‘含趣’와 ‘徘徊’였다. 시인은 산에 올라 석양을 맞이했는데, 마침 봄날이라 물물마다 현사롭게 봄빛을 발하고 있어서 아주 눈부실 정도였다. 흔히 산의 풍경을 담으려는 사람은 저녁 산을 오른다고 한다. 시인은 애써 저녁 산을 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斜陽’ 덕분에 산의 풍경을 한껏 만끽할 수 있었다. 이 순간 저도 모르게 완물상지할 듯한 격정에 배회할 뿐이라고 했다.

시제는 ‘登山玩景’이다. ‘玩景’이라 했으니 시인의 속내엔 다소 완물의 마음도 있었으리라. 1, 2구의 화사한 춘경을 눈 안에 담아내고 사물을 뒤쫓던 시선이, 3구의 자각을 통해 4구에선 절제된 ‘含趣’와 ‘徘徊’로 갈

무리된다. 침산에게 산은 경계의 공간인 셈이다. 즉 玩景처럼 밖으로 향하려는 마음과, 그것을 다시 안으로 갈무리하려는 절제, 이들 사이의 긴장관계가 여실하다. ‘莫如’라고 했으니 최상급의 비교이다. 즉 작자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 馳心과 收心의 경계에서 시적 주체의 의지가 강하게 발현되며 收心, 制心으로 귀결되었다. 짧은 시 안에 작자의 갈등과 내면의 의지를 담아놓은 셈이다. 어쩌면 그에게 ‘산’은 주체적 의지를 확보하는 계기적 공간이었지 않았을까? 다음 시를 보도록 하자.

<鷹峰에 올라 읊다>

秋山光氣泛如輕
所以言文必曰清
柳色空餘黃鳥跡
川聲猶助白鷗情
漏天尚有昇東日
大野那無拱北星
霧後高登誠勝事
曠然心界破愁城

가을 산의 기운이 가볍게 떠 있나니
그래서 文은 반드시 맑아야지 라고 하네.
버들 빛은 부질없이 노란 꾀꼬리의 자취를 남기고
강물 소리는 그래도 하얀 갈매기의 마음을 돕구나.
뚝린 하늘에 그래도 동방의 해는 떠올라 있거니와
너른 들판에 어찌 북극의 별을 끼고 있지 않으리오.
개인 뒤 산에 오르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이라
환히 트인 마음의 경계가 시름을 깨친다오.

‘鷹峰’은 지금의 星州 金水面 厚平里 뒷산을 말한다. 1구와 2구 사이에 논리의 비약이 숨어있다. 가을 산의 풍경들, 무언가 홀가분하게 떠 있는 듯한 분위기와 글을 말할 때 어김없이 ‘清’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논리적으로 골장 연결되지 않는다. 풍경과 맑은 문장(淸文)이라니! 이는 7, 8구를 가야 고개를 주억거리게 한다. 즉 비가 갠 뒤의 등산은 맑은 분위기를 한껏 누릴 수 있다. 그 덕분에 心界는 시름을 걷고 환하게 트이는 맛을 경험하게 된다. 미련을 보고 난 뒤 수련을 보면, ‘秋山’은 비가 갠 뒤의 맑은 산이었고 그 산을 보는 순간 마음이 豁達하게 트여서 시를 짓거나 글을 쓸 때면 당연스레 淸新한 격조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구에서 ‘文必曰淸’이라고 했지만 무조건 淸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바로 이런 풍경과 心界 속에서 文을 청하는 것이 제격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3~6구는 ‘秋山光氣’를 표현하고 있다. 3, 4구는 ‘柳色’과 ‘川聲’, ‘空餘’과 ‘猶助’, ‘黃鳥’와 ‘白鷗’, ‘跡’과 ‘情’으로 짝을 이루면서 7언이 모두 對를 이루고 있다. 율시의 3, 4구 對格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셈이다. 完整한 대구는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풍경의 묘사를 극대화한다.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빛깔로든, 외면적 跡이나 내면적 情으로든! 게다가 5, 6구 사이에도 대를 맞추어놓았다. ‘天’과 ‘野’, ‘有’와 ‘無’, ‘東’과 ‘北’. ‘漏天’은 비를 뜻하니, ‘大野’와 대를 이루면서 수직과 수평의 구조까지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3, 4구의 근경의 秋氣는 5, 6구에서 종적 橫적으로 공간이 극대화되며, 나아가 해가 뜨는 낮과 별이 뜨는 밤이란 시간의 진폭까지 아우르게 되었다. 비가 갠 뒤의 상쾌함을 천지의 공간까지 확장해놓았던 것이다. 게다가 이 함련, 경련에서 자아내는 풍격은 바로 2구의 ‘淸’으로 요약될 수 있으니, 이 시는 二開七閤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더욱 주목할 것은 ‘鷹峰’이란 공간이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그 산에서 작자는 ‘心界’의 ‘曠然’을 확보한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 단순히 비가 오는 날의 우울함을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알 수 없는 ‘愁城’을 깨뜨리고야 말며, 그것은 응봉에 올라서 가능했다. 침산의 시에서 비는 다소 불안하거나 制約된 환경, 칙칙했던 분위기, 음울한 풍경을 그려진 경우가 많다. <비를 근심하다(憫雨)>¹⁾가 그러하고, <넘치는 물을 구경하다(玩漲)>²⁾가 그러하다. 그러니 ‘霧後’는 작자에게 참으로 기쁜 상황으로 다가올 뿐이다. 작자에게 산은 이전과 다른 세상의 풍경을 바라보고 자기 내면의 陰鬱을 내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는 이 마음을 <암자 뒤에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다>에서도 드러내었다.

1) <憫雨>, “謾雨支離跨月彌, 滲雲蒙霧日愆曦. 山溪日漲江聲壯, 晝戶沉冥夜色愁. 廚下炊娥相怨濕, 堤頭農叟競呼危. 頑陰久使民情病, 每對蒼天欲質疑.”

2) <玩漲>, “雨餘溪間萬千波, 大受江心不讓多. 前期直在滄溟到, 何患狂風吹作斜”

足踏窮高眼更新
山來水去各天真
人能超俗能如此
何物妖侵敢作隣

발로 직접 높은 산을 다 가니 눈 더욱 새로울시고
산이 오고 물은 가며 저마다 천진일레라.
사람이 세속을 넘기가 이와 같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요망하게 스며와 감히 이웃이 되리오.

이 시에서 주목되는 구절은 1, 2구이다. 직접 산에 올라서 높은 곳에 올라 보니 ‘眼更新’하다고 했다. 바로 이 지점이 작자가 산을 마주하는 부분이다. 산에 오르는 것은 자신의 시야를 드넓게 가져가는 것이고, 나아가 시각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그것이 꼭 의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시의 경우 ‘足踏窮高’라고 했으니, 작자의 주체적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인다. ‘갱신한 眼’으로 파악된 내용은 무엇일까? 일단 시 안에서는 2구에서 보듯, 산수가 자연스레 흘러갔다가 찾아오는 풍경이다. 각각 천진을 간직하면서 ‘來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4구에 오면 분위기는 다소 달라진다. 작자의 고민이 노출되는 데, ‘超俗’하지 못해 어떤 자극에 의해서 심란해하는 듯이 보인다. 1, 2구의 편안한 분위기가 3, 4구에서는 여의치 않다는 점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4구의 반어는 현재가 부조화함을 강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작자에게 산은 자신의 주체적 의지를 확보하고 ‘何物妖侵’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리하여 ‘超俗’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방식의 삶의 초월을 꾀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사실 작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고민하면서 산에 올랐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시는 침산이 젊어서 공부할 때 지은 시로서 세상과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점차 어두워지는 국운을 감지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확실하진 않다.

침산은 가끔은 산에서 동지를 만나서 기쁘게 같이 도심을 배우기도 하고,³⁾ 그리운 이를 보기 위해 산을 오르기도 한다.⁴⁾ 사실 이런 행위는

3) <四痴洞에 우거할 때 李孔伯(師魯) 어른과 李華伯 등 친구들과 유람하다>, 제2수 “我本居城市, 入山渾忘歸. 非云爲客好, 堪愛與朋友. 乘醉回舟晚, 處閒談世稀. 知時草木發, 識得道心微.”

4) <浦鹽에서 느낌이 있어 뒷산에 오르다>, “邊山孤客久淹留, 悵望時時獨上樓. 萬落雲煙頻惹目, 千里山水總關愁. 遙憐棣萼書來闊, 多曠蒼顏歲去悠. 擾海茫茫人不見, 未知何

산을 오르는 이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침산에게 산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듯하다. 그의 호도 침산이 아니던가? 사실 그는 자신의 병통으로 산을 좋아한다고 했었다.⁵⁾ 언젠가 침산은 恒山子 金觀于를 위하여 「恒山序」를 지어준 바 있다.

“산이 사람에게 덕이 됨은 진실로 크다, 恒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恒은 일정하라는 뜻의 이름은 아니다. 사시는 변화가 있기에 오랴 수 있다. 일월은 밤낮이 있기에 오래 비출 수 있다. 성인의 도는 때를 따르기에 천지와 더불어 그 자람(長)을 같이 한다. 천하의 이치 가운데 이제껏 하나에만 구애된 채 오래고 자랄 수 있는 경우는 없었다. 마땅히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각자 항의 절도를 행하여야 옳은 것이다. 그래서 앞서 이미 진술해 알려두었으니 나의 관우는 유념하소서. 공자가 말하기를, “항을 지닌 사람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는 오늘 항산자를 보았다. 나도 또한 나의 산을 항상 배고 있는 것이 좋으리라.”⁶⁾

이 글은 김관우의 자호에 붙여준 서문이지만 산에 대한 침산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앞서 시에서 살펴본 것과 달리 제법 논리적으로 산이 지닌 미덕을 제시하고 있다. 산에 ‘恒’을 더하였으니, 실은 이 산은 일반의 산이 아니라 ‘항’의 덕을 지닌 산이다. 또한 김관우의 덕을 두고 말한 것이기도 하니, 침산이 희망하는 산의 미덕만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서문의 말미에, “吾亦恒枕乎吾之山可耶”라 하고 하여 자신도 자신의 산에서 ‘恒枕’하겠노라는 의지를 보였으니 꼭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다. 중요한 핵심은 隨時隨處에 따라 각자 항의 절도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에게 항은 하나로 일정하게 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바로 시간

處是神州.”

- 5) <죽인 舜欽, 李聖春(得一)과 같이 산을 오르려고 초청했으나 가지 못하고 시에 차운한다>, “膏肓素癖謾娛山 春到年年未頓閒. 溪柳方迎豪士氣, 巖花遙憶故人顏. 詩魂屢去江雲外, 樽酒今開渭樹間. 却恨樊籠幽繫跡, 任君徒自弄吟還.”
- 6) 「恒山序」, “山之於人爲德誠大矣 可不恒乎 然恒非一定之名也 四時有變化 故能成久 日月有晝夜 故能久照 聖人之道有隨時 故與天地同其長 天下之理未有局於一而能久長者 當隨時隨處 各自有爲恒之節度 故乃可 故前頭已有陳告 吾于并念. □子曰得見有恒者斯可矣 吾今見恒山子矣 吾亦恒枕乎吾之山可耶”

과 장소에 따라 변화에 부응하며 자기 주체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신안의 서쪽 10리쯤에 북쪽 이천의 남쪽에 가파르게 뻗어난 산이 하나 있다. 旺山이다. 그 가운데 일맥이 남쪽으로 향해 안산처럼 누워있는데, 마치 書籤과 같아서 籤山이라고 하며, 그 골짜기는 鋤蚩라고 하고, 그 별서는 荒茈이라고 하며, 그 높은 산은 鷹峰이라고 부른다. 이 籤을 의지하여 마을을 이루어서 마을 이름을 籤이라고 했는데, 혹 소리가 비슷해서 書枕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수인은 이 마을의 위쪽에 있으면서 조석으로 산을 베개로 베고 있는 것과 같고, 방 안에 천여 권의 책이 있어서 자신의 방을 ‘枕山書室’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곳의 주련에 주희의 말로 어첩을 붙이고 자신의 말을 덧붙였는데 다음과 같았다.

“오직 하늘과 리는 대현의 심결이라. 人俗에서 구하지 않고 백 대와 같이 하리.
나 오늘 어이 와서, 이 서실에 있고 남은 날은 얼마런가. 이에 이 뜻을 잃지 말지라”⁷⁾

비록 부분만 절록했지만, 침산은 ‘자신의 산’에 누워서 天理와 같이 하고픈 마음을 잃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다. 산에 올라 바라본 것은 자연의 풍경이요 산하의 아름다움이었지만, 침산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와 의지를 굳건하게 가져가려는 공간의 확보가 아니었을까.

3. 立心과 制行, 학문적 지향과 실천

<새벽 달빛에 거닐며>

皎皎天涯月	교교한 하늘 끝 달빛이라
昭通萬里雲	환히 만 리 구름을 통하누나.
仰看無點累	우러러 볼 손 한 점 티끌 없으니

7) 「枕山書室記」, 『침산수록』 권5, “惟天與理 大賢心訣 不求人俗 百世與質 我今焉來 在茲書室 餘日幾何 及此勿失此其志也” ○「書室銘」, 『침산수록』 권5, “惟天與理 大賢心訣 不求人俗 百世以質 我最其義 揭茲書室 是鑑是師 以付餘日.”

可警此心昏	此心이 어두운 것 경계할 만하여라.
秋晴天更遠	맑은 가을이라 하늘은 더욱 멀고
夜冷月尤明	차가운 밤이라 달은 더욱 환할시고.
獨步有何事	홀로 걷는 건 무슨 일이 있어선가
朗然驗本情	환하게 本情을 징험함이라네.

이 시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한다. 이 시는 전반적으로 환한 빛으로 빛나고 있다. 1, 2구부터 심상치 않다. ‘皎皎’ ‘昭通’이 그러하다. 다소 또렷하진 않지만 二開七閣의 구조를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즉 2구의 ‘昭通’의 구체적 내용이 3~6구에 찬찬히 제시되고 있는 바, 2구의 ‘無點累’, 4구의 ‘秋晴’, 5구의 ‘月尤明’ 등이 그것이다. 4구는 ‘可警’이라고 하여서, ‘昏’을 일깨워 밝게 만들 수 있음을 반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제에 새벽이라고 했으니, 작자는 밤을 새웠을 가능성이 있다. 여하간 흔히 殘夢 속에서 헤매고 있을 시인이 새벽 달빛 아래 거닐고 있으니, 심상한 일은 아니리라.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시인은 마지막 7, 8구에서 이유를 드러내었다. 즉 ‘驗本情’이라고 했다. 자신의 ‘本情’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새벽 달빛 아래 독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침산의 시는 자신의 마음을 찾아가는 경향의 시들이 자주 등장한다. 끊임없이 자신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단계로 나가고 싶었던 듯하다. 점차 나라가 일제의 압박 아래로 놓이는 시대에 ‘젊은 識者’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그에겐 늘 고민이었던 듯하다. 이곳의 ‘本情’을 성리학적 심성론과 직결시킬 수 있을지는 확인할 수 없다. 허나 그가 이즈음 간단없이 자신을 버리고 있었음은 확인된다. 비슷한 시기에 지은 시에 <金成伯 耳聾의 嘲笑에 변명하다>가 있다.

外聾非實聾	밖으로 귀먹는 것은 실제 귀먹은 게 아니요
內暗是真聾	안으로 캄캄한 것이 진짜 귀먹은 것이네.
莫向詩書聾	詩書에 귀먹어서는 안 되나니
惟從勢利聾	오직 勢利를 쫓는 데에 귀 닫으시라.

앞서 ‘奇’자를 운자로 활용하여 회작했던 시와 비슷한 느낌이다. 아직 검토는 온전히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침산의 작시는 그리 무겁지만은 않은 표현을 활용하여 진중한 의미를 담아내는 경향이 있다. 회학적 한시는 냉소적 분위기로 흐르기 쉬운데 그의 한시는 적절한 무게감을 유지하며 내용상 반어적으로 갈무리하는 표현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도 ‘龔’자를 운자로 하여 약간 장난치듯이 써 내려갔지만 내용인즉슨 그렇게 유머러스하진 않다. ‘龔’을 ‘外龔’과 ‘內暗’으로 나누고, ‘內暗’이 진짜 ‘龔’임을 말하고 있다. 아울러 식자로서 詩書 읽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세상의 勢利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마치 귀먹은 듯이 지내라고 한다. 1, 2구에서 ‘龔’은 부득이한 장애를 뜻하였지만, 3, 4구에서는 주체의 의지가 작동하는 바, 해서 ‘龔’은 귀를 닫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밖으로 향하지 않고 안으로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 시보다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大溪에게서 수학할 때, 같이 배우던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시다.

〈거창에 가서 대계현 선생 및 독서인들과 함께 읊고 보이며 경계하다〉

丈夫生斯世	장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寧辭第一人	어찌 제일인이 되기를 마다하리오.
立心須克己	마음을 세워서 모름지기 나를 이길 것이요
制行當期仁	행실을 단속해 정녕 어짐을 기약해야지.
讀書要義理	책을 읽는 것은 의리를 찾고
遇事着精神	일을 만나면 정신을 쏟을지라.
交友莫衰敬	벗과 사귀며 공경을 시들게 하지 말지니
疏情自狎因	마음을 소홀함이 바로 親狎의 원인이네.

처음부터 ‘丈夫’니 ‘第一人’이니 하여 남아로서 추구할 실존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제일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각각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내용을 담아낼 수 있다. 침산은 시의 3~8구 안에 강령 다섯 가지와 주의할 점 한 가지를 담아놓았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읽을 수도 있지만, 여하간 이 시는 일반적인 한시의 작법에서 살짝 비껴 나 있

다. 그래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침산이 제시하는 제일인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立心’. 마음을 바로잡는 것으로 극기를 요구한다. 둘째, ‘制行’. 행실의 궁극적 목표는 仁이다. 인을 이루기를 기약하고 있다. 셋째, ‘讀書’. 책을 읽을 때는 의리를 파악할 것을 요체로 해야 한다. 넷째 ‘遇事’, 일의 처리인데, 정신을 다하여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다. 다섯째, ‘交友’, 서로 공경하는 자세가 시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벗 사이는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경시하게 된다. 끝으로 ‘疏情’은 주의사항이다. 제7구와 연동하여 읽을 경우, ‘交友’에 한정하여 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의미가 다소 축소되는 듯하여 별도로 읽어보려고 한다. ‘疏情’은 한가로운 정 혹은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것으로도 해석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의 감정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이 오히려 친압의 원인이라는 점은 다소 의외이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제시해준다. 침산이 구체적으로 학문을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이 또한 별도의 논구가 필요할 정도다. 비록 동일한 시기에 이뤄지진 않았지만, 雜著(『침산수록』 권8)에 나오는 <三官隨錄을 읽고 의심이 생겨서 사사로이 기록하다>(1937) <檜社의 木鍾>(1902) 등은 성리학의 주요한 테마들에 대한 학술적 摘要이다. 이런 논의를 끌고 오지 않더라도 침산의 학문적 지향이 유학적 실천에서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앞서 평이한 곳에서부터奇的 것을 추구할 것을 요청했던 것도 바로 이런 침산의 생각에서 비롯한다.

Ⅲ. 결론을 대신하여: 근현대 지식인과 漢學

침산의 시를 검토하면서 그의 삶에 비추어 볼 때, 大溪 李承熙와의 추억을 담은 작품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침산은 대계를 만남으로써 학문의 세계에 들어섰고, 훗날 블라디보스톡으로 같이 건너가서 李相高, 柳麟錫 등과 교류하며 독립운동의 대열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이글에서는 대계와의 이야기는 별항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는 별도의 논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大溪先生高景錄』(『침산수록』 권 6)의 경우 스승 대계에 대한 추억을 에피소드로 담고 있는 바 영남지성사를 연구하는 데에도 흥미로운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앞서도 말했듯 침산은 거대한 산이며 그 산을 넘으려면 대계라는 산맥과도 만나야 한다. 아울러 일제하 독립운동이란 역사와도 만나야 한다. 또한 침산의 삶의 좌우에서 만났던 수많은 지식인들과도 접촉해야 한다. 지금 필자의 능력으론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다.

그렇지만 앞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침산의 시세계가 음풍농월의 한가한 餘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시는 전통학문의 일정한 학습 과정을 거쳐서 체화한 사람이라야 자연스럽게 창작될 수 있다. 현대인들의 한시창작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삶의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옛 글자에 옛 전고를 활용했다고 한시가 되진 않는다. 흉내를 낼 뿐이다. 침산은 1962년에 삶을 마감했으니 현대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전통학문의 학습체계를 익혔지만 그의 생활은 ‘현대적’이었다. 아무리 내려 잡아도 그를 근현대인이라고 규정할 때, 과연 이즈음 한시는 어느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잠시 일별한 바에 의하면 침산의 한시창작은 나름의 격조와 작가의식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후대로 올수록 점차 의례적인 작품이 많아지는 것은 한문학이 일상에서 가뭇없어지는 것과 관계되는 부득이한 일로 생각된다.

“시는 사람의 성정이다. 그 시를 외우면 그 사람을 안다. 그래서 邦君은 백성의 노래를 채집하여 풍화를 징험했고 伶官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마음 씀씀이를 알았다. 시는 사람에게 眞影과 같다.”⁸⁾

이는 침산이<漢南詩序>(1914)에서 시란 무엇인지를 제시한 부분이다.

8) <漢南詩序>, “詩人之性情也 誦其詩則知其人 故邦君采民謠而驗風化 伶官聞人音而知心術 詩之於人猶影眞也.”

‘人之性情’ ‘影眞’ 등의 비유를 통하여 시는 사람의 속마음과 관련이 있으며, 그대로 사진처럼 찍어내는 것임을 밝혔다. 침산의 시에 보이는 풍모들은 그의 속마음과 초상화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본고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침산은 독서를 통하여 식자인으로서의 자질을 마련하고 산을 배우며 강한 주체적 의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며, 입심을 통해 학문적 지향을 설정하려고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후 이글에서 확인한 침산의 시적 정감의 맥박을 좇아 (침산이라는) 산자락을 굽이굽이 찾아가 그 속에서 폭 찾아보기를 희망해본다.

※ 이 논문은 2020년 8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9월 2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李洙仁, 『枕山先生文集』(필사본)

이수인, 강희대 역, 『국역 침산선생문집』(상하 2책), 성주문화원, 2019.

Abstract

A Study on the Life and Poetry of
*Chimsan Lee Soo in**

Kim, Seung-ryong**

This study aims to study Lee Soo-in's studies and ideas in earnest. 『枕山隨錄』 remains as a manuscript. In total, there are 8 volumes, including 詩302, 挽詩200, 書56, 序16, 跋文15, 說7, 論6, 通文5, 箴2, 銘9, 贊6, 上樑文5, 行狀5, 傳3, 墓碣銘8, 祭文46, 告由文13, 雜著8, and 輓詞, 祭文, 行狀, 墓銘, 訃告錄. In order to understand *Chimsan*, it is required to first consider his academic discussion,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historical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but this paper focuses on the sentimental world of *Chimsan*. As far as possible, this study deals with the poems linked to the activities of Chimsan, and through the poems, his feelings are concrete. It is not easy to restore the life of Chimsan completely. However, this study tried to follow the trajectory of the text, and through this, it was able to briefly present his annals, and also examined his poetic world in three categories. His poems were created with the main keywords of reading, mountain, and songs about things. Through this, the poetic world of Chimsan pursued

*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2-Year Research Gra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laohu99@pusan.ac.kr

the qualities as an intellectual through reading, changed the mountain into a willful space, and set up a mind, controlled the behavior and promoted academic practice.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Chimsan pursued the modern and modern life and how to live it through poetry.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academic orientation and practice of Chimsan in the future.

keywords :

Chimsan, Lee Soo In, willful space, intellectual(識者), set up a mind(立心), controlled the behavior(制行), Hanjoo(寒州) school.

